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전체회의 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목 차

- 양국 위원장 공동인사
- 한국측 조광(趙珖) 위원장 서문
-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鳥海靖) 위원장 서문

- 위원 명부

- 전체회의 활동기록
 - 제1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 제2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 제3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 제4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 심포지엄
 - 편집회의
 - 제5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양국 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관계사 쟁점 분야에 대하여 한일 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설 및 역사인식에 대한 공통점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발족했다.

제 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한일정상 간 합의로 2002년 5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활동하였던 것에 이어, 제2기 위원회는 2007년 6월에 발족해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그동안 4개 분과로 나뉘어 양국이 합의한 24개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12~17차에 걸친 합동회의와 5차례의 전체회의,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한 역사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과별로 정리하여 논문집의 형태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의 간행을 통해서 이제 한일양국의 학자들은 진지한 역사대화의 첫 장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 공동연구보고서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과, 동시에 양국 연구자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는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동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논문 및 논평들은 역사의 진실에 접근해 가려던 노력의 공통된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 노력에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정확한 역사와 다양한 역사 이해의 올바른 방법을 전해주고자 하는 공통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 보고서에 담겨진 연구성과가 결코 만족스럽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우선 기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의 연구성과들은 향후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의 번영을 기약하는 미래의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 珩)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 靖)

한국측 위원장 서문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선사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교류해 온 국가였다. 이 교류의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역사에서 중첩되거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상호 역사에서 공유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해석의 다양성이 배태(胚胎)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역사학의 오랜 전통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해석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앞서 사실에 대한 규명작업이 먼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접국의 역사에서는 비록 전문적 연구자의 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혹 공유·중첩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되었다.

인접국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국제평화와 상호이해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유네스코는 이미 1947년부터 각국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국제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의 학자와 교육전문가들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기꺼이 공동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1965년 이래 최근까지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차례 전개되기도 했다. 또한 1983년 이후 한일문화교류기금과 일한문화교류기금 등에서는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1982년 이후 한일 간에 역사문제가 상호 분쟁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어 나갔다. 이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여러 학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양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도 분쟁의 해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간에 전개된 이와 같은 노력들은 양국 사이에 전개된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둘이켜 보건대, ‘역사분쟁’은 한일 양국의 우의와 상호관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부도 이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본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2001년도에 일본의 특정 출판사에서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제로 인해 한일양국간의 역사분쟁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양국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2002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공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양국의 역사 서술에서 드러나는 상호간의 차이점 가운데 19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갔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적 지원 아래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첫 번째의 연구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2005년에 종료되어 연구결과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그쳐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동연구로서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양국의 정상들은 다시 한일 간의 역사문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지속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서 2007년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출범하여 2009년 말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그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간행하게 되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 작업 과정에서도 한일 양국의 연구위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해당 분야에 관한 자신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양국의 역사학계에서 축적해 온 연구 성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은 공동인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역사대화는 결코 단시간의 작업에 그치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그 실제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다방면에서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대화는 그 결과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양국 국민 상호간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또한 역사대화는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고, 상대방의 연구성과를 경청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갖추어질 때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대화,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이 전개하고 있던 역사대화를 목도하면서, 특히 역사 앞에서 겸허하고자 하는 그들의 성숙된 자세에 탄복했다.

그리고 베트남과 프랑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와 영국 간의 역사대화 과정에서, 그 역사가 가지고 있던 역동성에 대한 상호인정과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장면이 감명 받은 바 있었다. 역사대화의 구체적 성과는 이미 현대사에 관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인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대화의 성과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다.

공동 역사교과서의 간행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동 확인 및 확인된 사실에 대한 공통의 해석과 평가가 주류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성실한 역사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21세기는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한 역사대화의 시대이며, 그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향유하며 상호이해와 우의를 다져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한 바 있다.

이제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자들도 대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역사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 냈다. 우리가 이룬 대화의 성과들은 이 공동보고서에 결집되어 공표되었다. 이 공동보고서가 역사연구자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집필자 그리고 한일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소중히 여길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업은 한일 양국이 역사대화를 지속하는 데에 하나의 밑돌을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趙珖)

일본측 위원장 서문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15일의 일한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역사사실과 역사인식에 관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2년 5월 제1기 연구위원회(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2005년 3월의 제6회 전체회의로 일단 종료된 후, 그 연구성과로서 2005년 6월 1일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가 공간(公刊)되었다. 그 사이인 2004년 12월 17일 일한 정상회담 때 양국 수뇌 간에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합의되었다.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상기의 합의에 의거해서 제1기 위원회의 공동연구 성과를 계승해 2007년 4월 27일 양국 위원장 회담, 같은 해 6월 23일의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2009년 11월 28일의 제5회 전체회의에서 가보고서를 교환, 양국 지원위원회에 제출, 동 보고서의 공간(公刊)(2010년 3월 예정)으로 종료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역사공동연구를 지원해 주신 일한 양국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제1분과(고대사), 제2분과(중세 근세사), 제3분과(근현대사)에 새롭게 교과서 소그룹을 더해 3개 분과, 1개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 그룹마다 합계 십 수 회에 이르는 연구회, 보고회를 통해서 양국의 위원, 연구협력자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전개했다. 그 성과는 제2기 일한 역사공동연구보고서에 집약되어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역사에 반드시 ‘유일한 올바른 이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역사사상(歷史事象)에 대해서 국가, 지역, 민족, 여러 집단, 그리고 개인 사이에도 다양한 이해, 해석, 평가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그러한 역사사상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과 정확한 역사사실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 해석,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까닭을 꼼꼼이 검토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역사의 상호이해를 깊이하고 혹은 역사를 재검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나 자신도 197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많은 그런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제국(諸國), 중국, 동남아시아 제국(諸國) 등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때로는 자신이 상식이라고 이해했었던 역사의식을 크게 바꾸는 새로운 역사이해에 눈을 뜬 경험도 있다.

특히 21세기 초의 본, 알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열린 유럽 현대사 교육회의에 참석했을 때, 1990년대의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많은 귀중한 제1차 사료가 발견·공개되어 역사사실이 잇달아 밝혀지고 동시에 동유럽과 구소련 내의 제국(諸國)에서 근현대사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역사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치문제, 외교문제와 연결되어 예상 밖의 대립, 알력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정의 역사관에 입각해 ‘유일한 올바른 역사’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가능한 다각적으로 역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에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상호작용(interplay of views)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본자세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나로서는 감명 깊은 경험이었다.

이후, 일한역사공동연구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역사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한층 유효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능한 일국사, 일민족사를 넘는 넓은 시점에 서서 국제관계(교류)사, 지역사, 비교사 등을 대담하게 도입해야할 것이다. 애초부터 국가사, 민족사 입장에 선 역사연구, 역사교육

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역사연구, 역사교육에 있어서 배외주의적 경향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구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야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국제관계를 취할 경우에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에 더해 사회, 문화, 생활과 그 교류 등이라는 ‘역사의 인간적 측면’에도 충분히 눈을 돌려야만할 것이다. 외교, 전쟁, 정치 등의 분야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관계사의 전부가 아닌 것은 말할 수도 없다.

세 번째, 국제적인 역사공동연구는 이른바, 다원적 중층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양국 정부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일한역사공동연구가 큰 의의를 가졌다는 것은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양국 역사연구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흡수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요즘, 일본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출판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40종류 이상이 되고, 그 집필자는 적어도 200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권력이 특정의 역사관을 교과서 집필자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다양한 역사이해를 인식하는 의미에서도 본 공동연구와 동시 병행적으로 민간 수준에서 역사가, 역사교육가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일한 양국이 가능한 한 폭넓게 역사사료를 공개하고 자유로운 상호이용, 열람이 가능한 조건을 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사회과의 역사적 분야)의 근현대사 대외관계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역(譯)을 의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역사교육에서 국제적인 역사상호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번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의 성과가 이후 일한 양국민, 특히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역사 상호이해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2009년 11월 28일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 靖)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전체 위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명부

2009.11.28 현재

- 위원장 한국측 조광(趙珖)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鳥海 靖) 도쿄대학 명예교수
- 제1분과 한국측 김태식(金泰植)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노대돈(盧泰敦)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조법중(趙法鍾)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일본측 사카우에 야스토시(坂上康俊)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모리 기미유키(森公章) 도요대학 문학부 교수
 하마다 고사쿠(浜田耕策)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
- 제2분과 한국측 손승철(孫承哲)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
 이계황(李啓煌)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한명기(韓明基)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부교수
 일본측 구와노 에이지(桑野榮治) 구루메대학 문학부 준교수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스카와 히데노리(須川英徳) 요코하마국립대학 교육문화학부 교수 ★
- 제3분과 한국측 류승렬(柳承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교수
 이석우(李碩祐)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주진오(朱鎭五)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
 하종문(河棕文)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본측 아리마 마나부(有馬学)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현립히로시마대학 인간문화학부 교수 ★☆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도요에이와여학원대학 전임강사
- 교과서위원회 한국측 김도형(金度亨)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신주백(辛珠柏)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이찬희(李讚熙) 한국개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정재정(鄭在貞)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진성(鄭鎭星)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현명철(玄明哲) 경기고등학교 교사
- 일본측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술원 교수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사가대학 문화교육학부 준교수
 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쓰쿠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교수 ★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徳) 테이쿄대학 이공학부 준교수

★ 각 분과 간사

☆ 총간사 또는 대표간사

제1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I. 개요

일시·장소 : 2007년 6월 22일(금) ~ 23일(토) 도쿄 호텔 뉴오타니
예비회의 2007년 6월 22일(21:00 ~ 23:00)
분과별 회의 2007년 6월 23일(14:00 ~ 16:00)
전체회의 2007년 6월 23일(10:30 ~ 12:30)

참가자 : 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6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14명
* 일본측 아리마(有馬) 위원, 후루타(古田) 위원 불참

II. 전체회의 합의문

1. 위원회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이 기간 중에 보고서의 작성까지 종료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한다.
2. 각분과회의 연구주제는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고, 결정한 주제부터 연구에 착수한다.
3. 다음 전체회의는 2007년 11월 24일(토) 서울에서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심포지엄 개최 시기 및 형식 등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점에서 검토한다.
6. 회의기록의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간 계속 협의한다.
7. 분과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정부 간에 작성한 [합의문]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연구 내용의 내실을 기한다.
8. 위원장의 분과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해당분과의 합의에 기초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한다.
9. 연구기간 중의 대외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나 분과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고, 대외공표에 대해서도 합의한 사항만 발표한다. 발표는 양국 위원장 또는 총(대표)간사가 한다.

이상

2007년 6월 23일

한국측위원장 일본측위원장

Ⅲ. 보도자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6월 23일 (토) 동경 뉴오타니 호텔에서 제1회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전체회의에서는 양국위원장이 인사 및 각 위원 소개를 한 후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3. 오후에는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일정과 공동연구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이번 전체회의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위원회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이 기간 중에 보고서 작성까지 마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한다.
 - (2) 각분과회에 있어서 연구 주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결정된 주제부터 연구에 착수한다.
 - (3) 연구 성과물로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 (4) 다음 전체회의는 2007년 11월 24일 (토)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그 사이에 각분과회를 적당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

IV. 양국 위원 명단

(2007.6.23 현재)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위원장	조 광	고려대	도리우미 야스시	도쿄대
제1분과 (고대사)	김태석★	홍익대	사카우에 야스토시	규슈대
	노태돈	서울대	하마다 고사쿠★	규슈대
	조범중	우석대	모리 기미유키	도요대
제2분과 (근세사)	손승철★	강원대	구와노 에이지	구루메대
	이계항	인하대	사에키 고지	규슈대
	한명기	명지대	스카와 히데노리★	요코하마국립대
제3분과 (현대사)	주진오★	상명대	아리마 마나부	규슈대
	류승렬	강원대	핫토리 다미오	도쿄대
	하종문	한신대	오니시 유타카	고베대
	이석우	인하대	하라다 다마키 ☆★	현립 히로시마대
교과서 위원회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기무라 간	고베대학
	정재정☆	서울시립대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김도형	연세대	나가시마 히로키	사가대
	정진성	서울대	후루타 히로시★	쓰쿠바대
	현명철	경기고	야마우치 마사유키	도쿄대
	신주백	국민대	야마무로 겐토쿠	데이쿄대

비고 : ☆총간사 ★분과 간사

제2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I. 개요

일시·장소 : 2007년 11월 23일(금) ~ 24일(토) 서울 롯데호텔

예비회의 2007년 11월 23일(16:00 ~ 17:30)

전체회의 2007년 11월 24일(15:00 ~ 17:00)

분과회의 2007년 11월 24일(9:00 ~ 12:00)

참가자 : 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6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15명

*일본측 야무우치(山内) 위원 불참

II. 전체회의 합의문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 합의문

1. 연구주제의 선정

1) 가급적 제2회 전체회의까지 주제를 선정한다는 제1회 전체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제를 선정한다.

2) 각 분과가 공동연구 주제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합의된 부분부터 연구에 착수한다.

2. 연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형태

1) 연구보고서에는 연구위원의 논문을 중심으로 수록한다. 단, 공동연구자 내지 연구협력자의 논문은 필요시에 기명으로 수록하되, 그 논문의 편수는 연구위원 논문의 편수를 감안하여 상식선에서 조정한다.

2) 연구종료 단계에서 연구내용과 논점에 대해 정리하여 연구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단,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각 분과의 특성을 살려 공동 토론문, 녹취록, 비평문, 코멘트 등의 형식을 적절히 선택하여 수록한다.

3)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협력자는 각기 자국인으로 위촉한다.

3. 심포지엄의 형식과 시기, 장소

1) 심포지엄은 2008년 말경에 일본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구체적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전반기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2) 심포지엄의 공개여부 및 회의 형식(1일 개최, 2일 이상 개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2008년도 전반기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4. 분과회의 결과 기록문 작성

회의의 결과에 대한 기록은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양국 간사가 서명하여 교환한다. (* 전체회의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진행한다.)

5. 차기 전체회의

1) 2008년 6월 9일(토)부터 6월 8일(일)에 걸쳐 실시한다.

2) 이미 합의된 바에 따라 일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 개최 장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7년 11월 24일

한국측 위원장 조광(趙琬)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鳥海 靖)

Ⅲ. 양국 위원 명단

(2007.11.24 현재)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위원장	조 광	고려대	도리우미 야스시	도쿄대
제1분과 (고대사)	김태식★	홍익대	사카우에 야스토시	규슈대
	노태돈	서울대	하마다 고사쿠★	규슈대
	조범중	우석대	모리 기미유키	도요대
제2분과 (근세사)	손승철★	강원대	구와노 에이지	구루메대
	이계황	인하대	사에키 고지	규슈대
	한명기	명지대	스카와 히데노리★	요코하마국립대
제3분과 (현대사)	주진오★	상명대	아리마 마나부	규슈대
	류승렬	강원대	핫토리 다미오	도쿄대
	하종문	한신대	오니시 유타카	고베대
	이석우	인하대	히라다 다마키☆☆	현립 히로시마대
교과서 위원회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기무라 간	고베대학
	정재정☆	서울시립대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김도형	연세대	나카시마 히로키	사가대
	정진성	서울대	후루타 히로시★	쓰쿠바대
	현명철	경기고	아마우치 마사유키	도쿄대
	신주백	국민대	야마무로 겐토쿠	테이쿄대

비고 : ☆총간사 ★분과 간사

제3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I. 개요

일시·장소 : 2008년 6월 6일(금) ~ 7일(토) 도쿄 호텔 빌라폰테뉴 시오도메
예비회의 2008년 6월 6일(15:30~17:00)
분과회의 2008년 6월 7일(9:00~12:30)
전체회의 2008년 6월 7일(15:30~17:30)

참가자 : 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6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15명
* 일본측 시게무라(重村) 위원 불참

II. 전체회의 합의문

1. 심포지엄에 대하여

(1) 일시

12월 19일(금)-20일(토), 또는 12월 20일(토)-21일(일) 2일간 개최한다.

(2) 발표 형식

각 분과회 일본측·한국측에서 각각 대표 1인이 '종합보고'를 한다. 이외에 각 분과 위원이 '보충보고(개별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이 '보충보고(개별보고)'는 각 위원에게 의무적이지는 않다.

(3) 참가자 범위

참가자의 범위는 양국 위원 및 위원회 관계자(연구협력자, 정부관계자)에 한한다.

(4) 언론 대응에 대하여

시작 전 포토타임을 둔과 아울러, 행사 종료 후 양국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

2. 다음 번 회의(제4회 전체회의)에 대하여

11월 29일(토) 한국에서 개최한다.

3. 연구 기간에 대하여

이후의 연구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2008년 6월 7일

한국측 위원장
일본측 위원장

Ⅲ. 보도자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한국측 위원장 : 趙玘)는 6월7일(토) 일본 동경(호텔 : 빌라 폰 테뉴 시오도메)에서 제3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오전 분과별 회의에서는 각 분과 내의 스케줄에 따라 연구발표 및 토론이 실시되었다.
3.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대표가 지금까지의 분과별 공동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차기 전체회의는 2008년 11월 29일(토요일)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각 분과별 공동 연구주제는 별첨과 같다.

첨부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분과별 공동연구 주제 목록 1부. 끝.

〈별첨〉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 주제

제1분과

- 1)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 2)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 3)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한일관계

제2분과

- 1)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한일관계(왜구 구성 문제를 포함하여)
- 2)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국제 관계와 원인 문제를 포함하여)
- 3)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제3분과

제1부 한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 제1장 주권과 독립
제2장 권력과 국민

제2부 식민지기의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제2장 근대화
제3장 전시체제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 제1장 경제
제2장 외교
제3장 대중문화

제4부 ‘여성’과 ‘사람의 이동’

- 제1장 여성
제2장 사람의 이동

* 제4부의 제목 「‘여성’과 ‘사람의 이동’은 가제. 단, 그 아래의 장별 제목(제1장 ‘여성’, 제2장 ‘사람의 이동’)은 확정.

교과서위원회

이념

-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편찬

-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기술

-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 법 질서와 국가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IV. 양국 위원 명단

(2007.6.7 현재)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위원장	조 광	고려대	도리우미 야스시	도쿄대
제1분과 (고대사)	김태식★	홍익대	사카우에 야스토시	규슈대
	노태돈	서울대	하마다 고사쿠★	규슈대
	조범중	우석대	모리 기미유키	도요대
제2분과 (근세사)	손승철★	강원대	구와노 에이지	구루메대
	이계황	인하대	사에키 고지	규슈대
	한명기	명지대	스카와 히데노리★	요코하마국립대
제3분과 (현대사)	주진오★	상명대	아리마 마나부	규슈대
	류승렬	강원대	요코다 노부코	아마구치대
	하종문	한신대	오니시 유타카	고베대
	이석우	인하대	히라다 다마키☆☆	현립 히로시마대
교과서 위원회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기무라 간	고베대학
	정재정☆	서울시립대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김도형	연세대	나가시마 히로키	사가대
	정진성	서울대	후루타 히로시★	쓰쿠바대
	현명철	경기고	아마우치 마사유키	도쿄대
	신주백	국민대	야마무로 겐토쿠	테이쿄대

비고 : ☆총간사 ★분과 간사

위원교체 : (일본측) 요코다 노부코(横田伸子) 위원 (2008.4.1위촉), 핫토리 다미오(服部民夫) 위원 (2008.4.1 퇴임)

제4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I. 개요

일시·장소 : 2008년 11월 28일(금) ~ 29일(토) 서울 롯데호텔
예비회의 2008년 11월 28일(16:00~18:00)
분과회의 2008년 11월 29일(9:00~12:30)
전체회의 2008년 11월 29일(15:00~17:00)

참가자 : 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6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14명
* 일본측 기무라(木村) 위원, 야마우치(山内) 위원 불참

II. 전체회의 합의문

1. 향후 공동 연구 활동 기간 및 분과별 연구 일정

(1) 연구 활동 기간

한일 양국 위원회는 2009년 12월 중에 양국의 지원위원회에 공동연구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2) 향후 분과별 연구 일정

분과별 연구 일정은 상기 '(1) 연구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그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다.

(3) 차기 전체회의 일정

차기 전체회의 일정은 2009년 12월경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다.(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2009년 6월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

2. 합동 심포지엄

합동 심포지엄은 다음달 12월 19일~20일 동경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이상

2008. 11. 29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장 조 광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장 도리우미 야스시

Ⅲ. 보도자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한국측 위원장 : 趙琰)는 11월29일(토) 서울 롯데 호텔에서 제4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오전 분과별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공동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실시되었고, 향후 분과회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3.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대표가 지금까지의 분과별 공동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1) 공동연구 결과 제출
한·일 양국 위원회는 2009년 12월 중에 양국의 지원위원회에 공동연구보고서(가제본)를 제출하기로 한다.
 - (2) 향후 분과별 연구 일정
향후 분과별 연구 일정은 상기 '(1) 공동연구 결과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좌담회, 비평회, 편집회의 등 세부 일정을 각 분과에서 협의하여 추진한다.
4. 합동 심포지엄 개최
다음달 12월 19일~20일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차기 합동 전체회의 일정은 2009년 12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6월에도 개최할 수도 있다.

이상

IV. 양국 위원 명단

(2008.11.29 현재)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위원장	조 광	고려대	도리우미 야스시	도쿄대
제1분과 (고대사)	김태식★	홍익대	사카우에 야스토시	규슈대
	노태돈	서울대	하마다 고사쿠★	규슈대
	조범중	우석대	모리 기미유키	도요대
제2분과 (근세사)	손승철★	강원대	구와노 에이지	구루메대
	이계황	인하대	사에키 고지	규슈대
	한명기	명지대	스카와 히데노리★	요코하마국립대
제3분과 (현대사)	주진오★	상명대	아리마 마나부	규슈대
	류승렬	강원대	하루키 이쿠미	메이지대
	하종문	한신대	오니시 유타카	고베대
	이석우	인하대	히라다 다마키☆★	현립 히로시마대
교과서 위원회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기무라 간	고베대학
	정재정☆	서울시립대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김도형	연세대	나카시마 히로키	사가대
	정진성	서울대	후루타 히로시★	쓰쿠바대
	현명철	경기고	야마우치 마사유키	도쿄대
	신주백	연세대	야마무로 겐토쿠	데이쿄대

비고 : ☆총간사 ★분과 간사

위원교체 :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위원(2008.9.24 위촉), 요코타 노부코(横田伸子) 위원
(2008.8.31 퇴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심포지엄

I. 개요

일시·장소 : 2008년 12월 19일(금) ~ 20일(토) 도쿄 호텔 뉴오타니

참가자 :

- 12.19(금)-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4명, 외교부 1명, 주일대사관 1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8명(아리마 위원(오후 출석)), 외무성 1명, 문부과학성 국제과 2명
- * 한국측 김도형, 정진성 위원 불참
 - * 일본측 오니시, 하루키, 야마무로, 야마우치, 기무라, 시게무라, 후루타 위원 불참
- 12.20(토)-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5명, 외교부 1명, 주일대사관 1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12명, 외무성 1명, 문부과학성 3명 (국제과 2명, 교과서과 1명)
- * 한국측 정진성 위원 불참
 - * 일본측 기무라, 시게무라, 후루타, 야마우치 위원 불참

II. 보고 주제 및 일정

발표일	분과	보고자	보고 주제
12월 19일	제 1 분과 (고대사)	조법종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김태식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임나문제를 포함하여-
		노태돈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한일관계(7~9세기)
		浜田耕策	고대 일한관계의 성립 -지역 간의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 (본인의 연구 구성과 현단계)
		森 公章	5·6세기의 일한관계
		坂上康俊	일본 울령제의 성립 과정에서의 신라의 영향
	제 2 분과 (중근세사)	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桑野栄治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の 役 -조선·琉球·일본에서의 대명 외교의례의 관점에서-
		須川英徳	17~18세기의 동아시아와 일한관계
		손승철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이계황	한일의 임진왜란 원인론
		한명기	17~18세기 동아시아와 한일관계 (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12월 20 일	제 3분과 (근현대사)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류승렬	일제하 조선통치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이석우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原田 環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三帝國의 국가 형태
		有馬 学	전시기의 의미 -1930~40년대 일본에서의 문화표상 속의 '조선인'-
		大西 裕	일본과 한국에서의 주민등록과 외국인 관리
		春木育美	일본과 한국에서의 여성의 사회 진출
	교과서위 원회	山室建徳	'사회과' 소학교 교과서 속의 일본사 일한 역사교과서와 '근대'에 관한 가설적 연구 -내재적 발전론과의 관계에서-
		永島広紀	일한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아시아문화권'론의 변천 일본의 '검정'과 한국의 '국정'-그 관계 기구상의 비교-
		정재정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초상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정진성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 연구
		이찬희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비교 연구
		김도형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근대 법 질서와 국가 -근대 한일 간의 조약과 그 성격-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현명철	한일 양국 교과서에서의 전쟁 기술		

Ⅲ. 보도자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심포지엄'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12월 19, 20일 2일간 도쿄 호텔 뉴오타니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1)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위원이 이제까지 각각의 담당 분야에 대하여 진행해온 연구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하였다.
 - (2)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각 분과, 교과서 위원회의 연구보고서 각 장의 제목은 별지 대로이며, 향후 각 분과화교과서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제목 등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

(별첨)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 주제

〈별첨〉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 주제

제1분과

- 1)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 2)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 3)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재편과 한일관계

제2분과

- 1)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한일관계(왜구 구성 문제를 포함하여)
- 2)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국제 관계와 원인 문제를 포함하여)
- 3)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통신사와 왜관의 의미를 포함하여)

제3분과

제1부 한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 제1장 주권과 독립
제2장 권력과 국민

제2부 식민지기의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제2장 근대화
제3장 전시체제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 제1장 경제
제2장 외교
제3장 대중문화

제4부 ‘여성’과 ‘사람의 이동’

- 제1장 여성
제2장 사람의 이동

* 제4부의 제목 「‘여성’과 ‘사람의 이동’은 가제. 단, 그 아래의 장별 제목(제1장 ‘여성’, 제2장 ‘사람의 이동’)은 확정.

교과서위원회

이념

-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편찬

-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교과서 문제의 사적 전개

기술

-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 법질서와 국가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편집회의

I. 개요

일시 : 2009년 9월 13일(일) 15 : 45~17 : 30

장소 : 도쿄 호텔 뉴오타니

참가자 :

일본측 : 도리우미 위원장, 하라다 위원, 하마다 위원, 스카와 위원, 후루타 위원

한국측 : 조광 위원장, 정재정 위원, 김태식 위원, 손승철 위원, 주진오 위원, 이찬희 위원

양국 위원장, 총간사, 분과 간사가 참여하여 편집방침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제 5 회 한일 합동 전체회의

I. 개요

일시·장소 : 2009년 11월 27일(금) ~ 28일(토) 서울 롯데호텔
예비회의 2009년 11월 27일(15:30 ~ 17:30)
분과회의 2008년 11월 28일(09:00 ~ 12:00)
전체회의 2008년 11월 28일(15:00 ~ 17:00)

참가자 : 한국측 조광 위원장 외 위원 16명
일본측 도리우미 야스시 위원장 외 위원 12명
* 일본측 오니시(大西) 위원, 하루키(春木) 위원, 후루타(古田) 위원,
야마우치(山内) 위원 불참

II. ‘회고와 전망’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의 대표 몇 명이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하였다.

(제 1 분과)

노태돈 위원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의 종료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회로선 먼저 안도감이다.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서 한일 간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는 것과는 달리, 양국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주는 압박감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서,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뒤 곧바로 부딪친 사안이 연구 주제 선정을 둘러싼 마찰이었다. 과연 위원회의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가 간간히 들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1분과에선 큰 어려움 없이 공동연구 주제의 설정이 비교적 일찍 합의되었고, 이제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대사 분과에 속한 양측 위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이를 가능케 하였음은 물론이다.

보고서 제출 후 느끼는 것은 아쉬움이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간 내에 작업을 무사히 마쳤지만, 부과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사학계에서 이해의 차이가 큰 문제를 연구 주제로 하였다. 그에 따라 공동연구 또한 양측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다시 살펴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형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제 설정과 연구 진행에서 정치사가 중심이 되었다. 앞으로는 사회사와 문화사로 그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하겠고, 학계의 기존 역사인식의 틀을 넘어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시각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사라는 관점을 적극 고려한, 한일 공동의 고대사 체계 수립 방향의 모색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다시 이런 공동연구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이번 제2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년 동안 나로서는 많은 것을 얻었다. 특히 양국을 오가며 행한 유적 답사는 인상적이었다. 남으로 오키나와에서 북으로 센다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여러 지역의 유적과 풍토를 직접 살피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이는 그간 문자를 통해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었고, 이런 생생한 체험은 일본의 역사와 문

화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일 양국의 젊은 사학도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양국 역사학계의 상호 이해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카우에 위원 :

제1분과에 참여하여 한국에서의 8~9세기 연구의 진전 상황을 알 수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다. 앞으로 한국·일본 고대사의 비교사 등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로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였지만, 향후 고대사 연구는 고고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만일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고고학 전문가도 참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모리 위원 :

본인 담당은 5~7세기 일한관계였다. 이 시대의 사료는 일본쪽은 《일본서기》, 한국쪽은 《삼국사기》가 대표적인 것인데, 문헌사료는 제한되어 있다. 연구 기간 중에 일본과 한국에서 7~8곳의 유적을 견학했는데, 새로운 사료 해석을 얻는다는 의미에서도 답사는 불가결하다고 느꼈다. 또, 일본에서는 주로 7세기의 것이 발견되는 목간에 관해서도, 한국에서는 6세기의 것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출토 문자 사료에 관한 일한공동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제2분과)

이계황 위원 :

생각해보면 2년 반 전에 도쿄에서 만났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다. 그 당시는 회담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모든 위원들의 진지한 태도,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회의에 임했으리라 생각한다. 제2분과는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지적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일단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성공의 배경에는 일본측 위원이신 스카와 선생님, 구와노 선생님, 사에키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학문적으로 고매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분들의 양보와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2분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1기의 공동연구는 문제점의 확인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2기는 차이점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역사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제3기가 계속된다면 왜 차이점이 발생하였는가 등에 대해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기에 거는 기대가 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 이렇게 역사 대화가 더 지속된다면, 우리는 좀 더 인류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 인간으로서 삶을 충분히 가치 있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사무국의 조력 없이는 공동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양국 사무국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스카와 위원 :

제1기 제2분과의 보고서에는 매우 격렬한 논의의 기록이 남아 있다. 제2기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필요없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공통의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렇게 썼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공동연구를 함께 있어, 제2분과에서는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공동연구에 있어서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는 잘못이다, 혹은 자신들은 우월하고 상대는 열등하다고 하는 그릇된 태도로써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나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에서 유래하는 것인지를 같은 역사학도로서 스스로의 역사이해와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연구의 본연의 모습을 역사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학의 시선은 과거에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스스로에 대해서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히 강조하고 싶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일한의 전문가가 실시하는 공동연구라면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처럼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다루는 공동연구의 경우,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상대방의 역사인식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 3분과)

이석우 위원 :

활동하는 동안 많은 좌절도 있었고, 한일 양국 위원들 간에 약간의 반목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 절차진행 과정이나 주제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공동보고서를 교환하기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일본측, 한국측 선생님들 모두 상호 이해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제법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경험으로 볼 때 국제회의는 거의 모든 회의 결과가 마감일에 결정된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도 마감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분과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일본측 선생님들 2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교체되었다. 한국측이 너무 큰 부담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었다.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 분들의 건승과 쾌유를 빈다.

아리마 위원 :

제2기가 이제 막 끝난 단계에서 성급하게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한역사공동연구는 오래 지속되어야 할 프로젝트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끈기있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3분과의 보고서에는 문제 제기의 내실있는 논문을 모을 수가 있었다. 또 일한 양국 위원 중 거의 대부분이 남성 연구자인 상황에서, 제3분과는 일한 합계 7명의 여성 연구자가 수준 높은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다.

(교과서위원회)

정진성 위원 :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의 여초현상에 대해서 남자 기자들이 기분 나쁘게 기사를 쓰고 있다. 각종 고시나 명문 대학 합격자에 여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지난 역사를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목적은 한국과 일본 간의 앞으로의 관계를 더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전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성위원이 저 한 명뿐이었다는 것은 고루한 느낌이 없지 않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젠더 밸런스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공동보고서를 만들기까지 양국의 의견 대립 등 많은 일도 있었지만, 기무라 간 선생을 비롯한 일본측 위원과 우리 한국측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교과서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감사한다.

정재정 위원 :

우리 교과서위원회는 새로 설치된 분과여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과도하게 다가왔다. 막상 회의를 열어보니, 위원 구성이 대단히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위원도 있었다. 연구 주제 선정 과정부터 양국 위원들의 살바싸움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연구 주제가 선정되고, 두 나라를 오가면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할 수도 있었고, 정(情)도 깊어진 경험을 했다. 특히, 일부 위원의 양국간 합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교과서 위원회는 공동보고서 작성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서로 사정이 다른 두 나라 간의 역사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위원끼리 믿고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격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제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한일 간의 공동위원회가 재개된다면, 이 점만큼은 각 위원들이 명심하고, 절차탁마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더 발전한다는 것을 교훈삼아 좀 더 훌륭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계무라 위원 :

우선 정재정 위원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한다.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이 교과서위원회 덕분이 아닌가? (일동 웃음) 연구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와 충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양국 위원들의 진력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인은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측 위원들의 보고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을 공부할 수도 있었다. 개인적인 우정을 쌓을 수도 있었기에 감사한다.

이상

II. 보도자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5회(최종) 전체회의에 대하여

1.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¹는 2009년 11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양국의 위원장 및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전체회의 및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했다.(양국위원 명단 별첨)
2. 금일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간(2007.6.23~2009.11.28)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가제본)」의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상호 교환을 하였다.
3. 향후, 보고서는 약간의 편집 과정을 거친 뒤, 양국 지원위원회*²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

*1. 2005년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의거하여 2007년 6월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제1분과(고대사), 제2분과(중근세사), 제3분과(근현대사), 교과서위원회의의 네 분과로 나뉘어 한일관계사 및 양국 교과서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한일 양국의 민간 지식인 및 정부 관계자 각각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IV. 양국 위원 명단

(2009.11.28 현재)

구 분	한 국 측		일 본 측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위원장	조 광	고려대	도리우미 야스시	도쿄대
제1분과 (고대사)	김태식★	홍익대	사카우에 야스토시	규슈대
	노태돈	서울대	하마다 고사쿠★	규슈대
	조범종	우석대	모리 기미유키	도요대
제2분과 (근세사)	손승철★☆	강원대	구와노 에이지	구루메대
	이계황	인하대	사에키 고지	규슈대
	한명기	명지대	스카와 히데노리★	요코하마국립대
제3분과 (현대사)	주진오★	상명대	아리마 마나부	규슈대
	류승렬	강원대	하루키 이쿠미	도요에이와여학원대
	하종문	한신대	오니시 유타카	고베대
	이석우	인하대	히라다 다마키☆☆	현립 히로시마대
교과서 위원회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기무라 간	고베대학
	정재정	서울시립대	시게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
	김도형	연세대	나카시마 히로키	사가대
	정진성	서울대	후루타 히로시★	쓰쿠바대
	현명철	경기고	야마우치 마사유키	도쿄대
	신주백	연세대	야마무로 겐토쿠	데이쿄대

비고 : ☆총간사 ★분과 간사